

“새만금 기본계획 조기 변경 필요”

안호영 의원, ‘새만금 지속가능발전 포럼’서 주장 “새만금 개발 성과도민에게 돌아가도록 원칙 확립”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새만금 기본계획의 조기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전북도 지속가능발전포럼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새만금 배수갑문 설치와 조력발전 등 해수유통을 검토하는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조기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새만금 개발의 성과가 도민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책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전북을 찾아 “새만금 개발을 국민토론회를 통해서라도 조기 종결하겠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한 확고한 당의 의지를 도민 앞에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한,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에서 제시한 새만금을 대한민국 그린뉴딜과 해양·생태관광 중심지 ‘초’라는 새만금 개발 비전과 핵심사업에 대해 공감할 것이며, “이는 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세운 원칙과 큰 틀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은 특히 새만금도 수질 개선 문제나 농생명용지 농어민 우선 분양 등 요구 공약에 대해 “지난 30년

간 새만금 갈등으로 고통받아온 도민들과 국민들이 새만금호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라며 “새만금 개발은 어민 등 지역주민들의 희생 위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그 성과는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은 새만금사업 30주년을 맞아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새만금 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안호영 의원, 윤동욱 도 새만금 해양수산국장,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등 정치권부터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각 분야 인사들이 토론에 나서 머리를 맞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지난 10일 전북도 청소년 지도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해야”

이명연 도의원, 청소년 지도사 처우·지위 향상 포럼서 “새로운 미디어로 무장 청소년, 30년전 수련활동 기준 부적합”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완경북지위원장 전주1)이 지난 10일 전북도 청소년 지도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전북도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의 보수수준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지도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MZ세대 청소년들은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로 무장하고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반면, 청소년수련시설들은 여전히 30여년 전 수립된 초기 수련시설의 수련활동 기준으로 건립·운영되는 곳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청소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윤근 관장(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은 “2022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전년대비 임금인상률이 1.4%에 지나지 않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곳이 있다”며 열악한 처우에 자괴감을 나타냈다.

이날 포럼은 김정현 관장(순채청소년수련관)이 배치청소년지도사 사업 소개를 이윤정 팀장(군산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김익숙 센터장(전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 전북도 청소년지도사 근무환경과 스트레스에 대해 발표했다. /유호상 기자

황영석 부의장, 적십자회비 전달

전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김제1)이 지난 10일 의정실에서 최현욱 도의원(전주0)과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최정숙 봉사회 전북도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황 부의장은 “기후변화로 각종 재난 재해가 빈번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취약계층도 늘고 있어 적십자사의 구호 활동이 절실하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적십자회비 모금에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소의계층에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제2 벤처붐’ 조성 앞장 창업생태계 활성화 공로 인정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중소벤처기업 발전 기여 감사패 받아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사진 왼쪽)이 지난 1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2021년 벤처기업 전북(VJ) Boom-up’에서 ‘제2 벤처붐’ 조성에 앞장서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지난 1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2021년 벤처기업 전북(VJ) Boom-up’에서 ‘제2 벤처붐’ 조성에 앞장서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전북도,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여성벤처기업협회 (사)전북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 전북 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한 이번 ‘2021년 벤처기업 전북(VJ) Boom-up’은 벤처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술 혁신의 선봉장이 돼 나후된 전북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기술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도내 벤처기업 대표를 비롯해 기업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1부 감사패 전달식에서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김철수·김정수 전북도의원과 함께 감사패를 받았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12월 말

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2년 7개월 동안 경진위원을 이끌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 전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인호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장은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그간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중소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힘써 왔으며 “중소벤처기업인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패를 전달,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맡은 역할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까지 받으니까 뿌듯하면서도 어깨가 더욱 무겁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지역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여 달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공장 증설 시, 태양광 설치 등 국가지원 필요성 공감”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 일한 효성첨단소재 공장 방문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사진 오른쪽)가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 일한 번째 일정으로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탄소섬유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을 지난 9일 방문했다.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전주 기업 릴레이 탐방 일한 번째 일정으로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탄소섬유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을 지난 9일 방문했다.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은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철이 사용되는 모든 제품과 산업에 적용이 가능해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TANSOME)을 생산하는 탄소산업 핵심 기업이다.

박진진 효성첨단소재 공장장은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은 일본, 독일, 미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탄소섬유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재고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탄소섬유의 수요 공급이 반짝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갈수록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우범기 전 부지사는 “행정에서 기업이 하고 싶은 걸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지역이 살기 힘들다”며 “공장 증설 시, 태양광 설치 등 국가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우범기 전 부지사는 “탄소중립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필복동과 같은 산업단지는 물론, 공공건물의 경우에도 에너지중립형 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 및 국가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농어촌 경제회복·환경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법·비료관리법 등

농·어촌 경제회복 및 환경보호를 위한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법과 비료관리법,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원택 의원이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한 부정청탁금지법 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법과 비료관리법,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원택 의원이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한 부정청탁금지법 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 설·명절기간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촉구

문을 국무총리실, 농식품부, 해수부를 비롯 권익위에 보낸 바 있다.

이원택,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질의 시 전현희 권익위원에게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에 대해 권익위가 동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종료예정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원방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1년에서 3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비료관리법개정안을 통해 폐

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비포장 비료를 대량으로 매립·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포장 비료가 실제 공급·사용되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7월 전까지 신고하도록 신고수리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고,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은 물론, 경관과 환경보존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 농축수산물의 판로 개척을 통해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신영대 의원,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2021년 제2차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산 현안 및 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경장동 노후교량(송경교) 내진보강 공사 6억원, ▲금암동 내항수문 우수양계 보강 공사 8억원, ▲초등학교 5개교(봉초, 개성초, 옥봉초 대이광신(분교) 속도포지관(LED 스피커 디스플레이) 설치 1억원 등이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군산 현안 해결뿐 아니라, 주민 생활안전과 어린이 교통안전 등 시민 재난안전도 한층 높아질 기대한다”면서 “군산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소식

고창군의회 정례회 폐회

회기운영 조례 개정안 포함 총 55건 안건 심의·의결

9차 본회의서 원전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성명서 발표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84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달 10일부터 이날 10일까지 31일간 운영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시책보고,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고, 상임·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한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5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 집행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불합리한 부분 8건에 대해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감사 중 현장방문을 실시한 부안면 소재 고창정통발효식품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등 보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회기동안에 군정질문·답변도 진행했다.

첫 번째로 임정호 의원은 순화중 도도의 관리 방안 및 진입로 확보, 와탄천 지역 가뭄 극복방안에 대해 질문했고, 두 번째로 김미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후속대책, 청년·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 출산환경 조성 관련, 다자녀기준 확대 지원,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해 질문했다. 세 번째로 김미란 의원은 청소년수련관 관련, 동우클럽테마를 입주에 대한 질문을 했으며 네 번째로 조민규 의원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신탄종돈 개량사업 소 이진·폐업과 농협연수원 유지, 해상경계 확정에 따른 어업권 분쟁, 노을대교를 해저터널로 제안하는 질문을 했다.

한편 12월 10일 제9차 본회의에서는 원전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된 고창군의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인규 의장은 “2021년 한 해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 없는 세상을 위해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